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창당 의지 확고'

박지원 "우리의 길을 가자"  
천정배 "억지로 끌고가지 말라"  
정동영 "안은 바이러스"  
조배숙 "의장 빼앗는 것 쿠데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 참석한 우원식(앞줄 왼쪽) 원내대표와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과 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대표 조배숙)는 통합을 강행하는 안철수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며 개혁신당 창당을 통한 '합의 이혼'을 확실히 했다.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지를 다졌다.

우선 박지원 전 대표는 "이제 안 대표는 비난할만한 가치가 없다. 세상에 이런 당 대표는 처음 봤다"며 "지금 통합은 밀실통합이다. 의원, 종진들에게 통합의 통지도 꺼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통합을 했다. 당 대표의에서 500명 권리당원을 임명하는 건 뭔가. 그건 말도 세습하지 않은 박정희의 유신정우회를, 전두환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그대로 세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의 새정치는 썩은 정치다" 이런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며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개혁신당의 창당준비를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안 대표는 촛불혁명 이후 진행되는 여러 개혁, 낡고 병든 체제 청산 등에 힘을 실기는 커녕 기득권 세력, 특권세력, 보수-수구-냉전세력에 합류해 오히려 개혁과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저지하려 한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는데 왜 애꿎은 우리까지 다 억지로 강제로 끌

고려려나"고 꼬집었다.

천 전 대표는 "그런 독재적 발상은 유신 시대나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집권 시 벌어졌던 일이다. 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역사를 생각해보고 또 실력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가는 시도는 중지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만 되면 국민이 합한 모습 보이지 않고 이른바 합의이혼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들은 안철수가 만든 백신, 안철수 백신에 열광했지만 지금은 백신이 아닌 바이러스다. 한국정치를 썩먹는 바이러스"라며 "최절해야 할 구정치의 모습, 우리 정치에서 사라지고 있는 구태정치 모습을 되돌려놓는 안철수 정치의 행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

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비판에 그쳐선 안 되고 안철수의 구태를 극복해야 한다.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며 "개혁신당의 길을 시작하는 오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 대표인 조배숙 의원은 최근 전당원대표자회의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이 안 대표에게 전당대회 의장의 사회권을 제한하거나 의장 지위를 박탈하는 당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언급하며 "침담한 마음이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당대회는 당헌상 최고 대의기관으로, 국가로 따지면 국회에 비교할 수 있다. 전당대회 의장은 국회의장에 비견된다"며 "(전준위위원장의 건의서 제출은) 국민의당에서 최소한의 대의 민주주의도 없애려는 것이다. 저는 건의서를 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을 알리는 비상조치 선포문이 떠올랐다. 전당대회 의장의 지위를 빼앗는 것은 명백한 쿠데타다. 안 대표는 당내 쿠데타를 한 전준위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에 "제 집작으로 어제 전준위위원장의 건의는 이상한 전대의장과 부의장들이 개입산언, 표결산언 등의 업무를 해대하면 당대표가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당규를 개정하려는 것 같다"며 "그런데 전당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을 어떻게 당 대표가 대신하게 한다는 것인가. 이는 정당법을 위반하는 꼼수를 저지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 개혁신당 전북결의대회 17일 개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대표 조배숙)는 17일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가칭)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를 연다. 운동본부는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의당의 창당정신을 무시한 채 보수세력에게 당을 송두리째 헌납하려는 안 대표의 폭거와 비민주성을 성토하는 한편 당이 나아가갈 길을 모색하는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다. 결의대회에는 조배숙, 정동영, 유성엽, 김중희,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도내 의원과 박지원, 천정배, 박주현, 이상돈 의원 등 개혁적 성향의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현역의원 및 지방의원, 대표 당원 등 5백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 자유한국당 호남권 신년인사회 17일 개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에 전북도당 당사 5층 대회의실에서 홍준표 당 대표와 함께하는 호남권 신년 인사회를 연다. 신년 인사회에서는 주요당직자 소개, 시무뒤편 커팅, 신년하례(다함께), 우수당원 표창장 수여 등이 열릴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박재만 도의원 중학생들 대상 '민주' 강연 펼쳐

박재만 도의원이 15일 오후 4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중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민주'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강연회는 일반적인 강의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적고 박재만 도의원은 학생들의 생각을 보면서 각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쌍방향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군산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그들의 관심사와 군산의 청소년 공간 플랫폼구성에 대한 설명과 과거의 민주화운동과 최근의 촛불혁명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발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생각을 쏟아냈다. 박재만 도의원은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간결한 진행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해주는 구성으로 학생들이 편안한 특강이라며 호평을 받았다. 박 의원은 강연에서 지난 촛불혁명을 보면서 "기본 상식을 지키지 못해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李·朴정부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 존재 주장

TF팀, 당시 박동훈 국가기록원장 수사의뢰 권고... 'ICA 서울총회 정치화' 조사 과정에서 확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처럼 국가기록원에 기록관리 전문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병우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혁신 TF 활동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은 2015년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을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TF는 국가기록관리 폐단 조사 결과 2016년에 개최된 ICA 서울총회가 정치화했다는 시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기록관리 전문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TF는 국가기록원장이 문제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장관 보고 문서(2015년 3월28일자)와 '한국 전문가(이상민 현 EASTICA 사무총장)가 국제기구인 EASTICA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저지했다'는 보고 문서(2015년 10월22일자)를 확보했다. 장관 보고문서의 블랙리스트 관련한 조직세신 추진배경을 보면 '일부직원과 외부 진보좌편향의 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적혀 있다. 또 ICA 총회 관련 문제제기는 준비위원 3명 교체를 이미 조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중 1명은 이소연 현 국가기록원장

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 위원장은 "진보좌편향인사라는 것의 규정 기준이 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록관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의 성격과 일하는 방식과 어긋난다고 하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진보좌편향 인사라고 평가한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TF는 총회 준비중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준비 과정에서 특정한 4명을 반드시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중 1명은 조영삼 당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경우 차별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EASTICA 사무총장은 "각종 기록관리,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학술연구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시점에 다 없어졌다"면서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지만 블랙리스트 명단 때문에 국가기록관리 일을 하면 안된다는 상부로부터의 지시가 있어 활동하지 못했다는게 피해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TF는 그러나 TF 권한의 한계로 '문제위원 8개 위원회 20명' 명단의 실제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국가기록원에서 특정한 인사를 차별·배제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20명의) 명단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국가기록원이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뉴스

##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17일 판문점 남측에서 개최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파견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오는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5일 "북측은 우리 측이 12일 제의한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을 17일 오전 10시 평화의집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한 이번 실무회담에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을 단장(수석대표)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측에서는 천재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이 실무회담에 나갈 전망이다. /뉴스

##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한민안국)

후원금 사용내역	금액
01. 위익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